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4차 발굴조사

제동로·대규모 폐기장 추가 조사 완료... 동 생산 체계 복원 핵심자료 될 것으로 판단

전라북도와 진안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는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4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제동로(製銅爐) 2기와 대규모 폐기장을 추가로 조사했다.

전북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창촌마을 내에 위치한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製銅遺蹟)은 신중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에 기록된 '동향소(銅鄉所)'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앞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제동로(製銅爐) 2기와 대형 폐기장(廢棄場) 등이 조사됐다.

특히 제동로 중 1기는 동광석에서 동을 1차로 추출하기 위한 제련로(製鍊爐)로, 국내에서 처음 조사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4차 발굴조사는 지난 2020년 12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동로와 폐기장의 잔존현황 및 성격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2기의 제동로는 평면형태가 모두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상부는 유실되어 숯·소토·석재로 조성된 노의 기초시설만 일부 남아있다.

후대 제동로의 경우 북쪽에 유출재(流出滓)가 응착(쇠불이 등이 녹아 붙음)되어 있어 노의 세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노의 규모와 위치, 북쪽에 남아있는 유출재



제동유적 제동로 전경.

를 고려할 때, 후대 제동로는 제련로로 판단된다. 2018년에 조사된 제련로와 더불어 동 생산 체계를 복원하는데, 핵심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쌓여 형성된 폐기장은 동-서 너비 20.2m 내외이다. 폐기장의 크기로 볼 때, 유적에서는 대규모의 제련(製鍊)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장에서는 슬래그 및 각종 부산물·노벽편·추정 송풍관(送風管) 등 조업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폐기장에서 토기편만 극소량 출토되어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동 생산 시설물의 시기



제동유적 폐기장 출토유물.

를 특정하기 어렵다. 향후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목탄시료의 분석을 통해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4차 발굴조사 성과가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사적 지정 추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유적의 범위 및 성격 등도 심도 있게 파악할 예정이지만 아니라 인접한 '동향광산'과의 연계된 보존·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기자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배현숙 씨 종합대상 수상

국악 명인·명창의 등용문인 '제12회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0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을 통해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2년째 고창서 열리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부로 나눠 판소리, 무용, 민요, 고법·기악·타악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악인들이 그간 갖고 닦은 실력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결과 ▲종합대상 배현숙(부산광역시) ▲판소리부 최성희(대전광역시) ▲무용부 이숙자(전주시) ▲민요부 이명점(창원시) ▲고법·기악·타악부 강진우씨(정읍시)가



'제12회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배현숙 씨가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각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예술연구진흥원 서양수 이사장은 "대회가 재능있고 훌륭한 국악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문화재단, '창작예술학교' 예술인 모집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교육하는 예술가 양성과정인 '2021 창작예술학교'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공연·기초문화재단 간 문화예술교육 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올해로 5년째 창작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1 창작예술학교'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연구·현장실습의 과정을 운영한다. 기획 및 연구과정에서는 공동 워크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약 한달 간 대상을 모집하고 실행하는 개별 현장실습으로 이어진다.

이에 재단은 20명의 예술인을 모집해 공동 워크숍을 추진,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 실현 가능성과 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을 선발해 각각 100만원씩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간 추진했던 창작예술학교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과, 전주문화재단이 예술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팔복예술공장 뿐만 아니라 전주 생활권으로 확장된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창작예술학교를 통해 예술인들은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창작활동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장소와 콘텐츠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예술학교 신청 조건은 나이, 학력, 전공 분야 제한 없이 도내 거주하고 있는 현업 예술인이거나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참가신청서 및 포트폴리오)와 2차 그룹 인터뷰 심사를 통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 간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창작예술학교를 통해 교육하는 예술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예술교육 현장에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예술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이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통해 예술교육도시 전주로서의 면모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cf.or.kr) 및 팔복예술공장 누리집(www.palbokart.kr)이나 팔복예술공장 예술놀이터(063-283-922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작품 모집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사업의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번역 및 자막제작 지원, 영화제 출품비용 지원, 선제물 제작지원, 상영활동 지원 같은 기타 지원 등 4개 항목이며, 항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총 7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해 총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작품의 연출자가 1편만 신청 가능하다.

2021 전주영화마케팅지원은 전년도 전주영상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결과작 및 만 18세 이상의 전라북도 거주 영화제작자, 전북지역 내 영화·영상 기관·단체의 2020-2021년도 제작지원 및 콘텐츠 개발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장/단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작품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주영화마케팅지원은 지난해 '2019 전주영상위원회 장편영화제작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최진영 감독의 '태어나길 잘했어'의 포스터와 굿즈, 트레이더 제작 등 홍보물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영화계의 수상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다.

2021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작품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기획홍보팀 이메일(jcf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9년 연속 선정

전북대박물관, 지역 문화 유산 온라인 이론 교육·탐방·체험 활동 등 교육 운영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찬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풍남문을 열고, 전주성으로!'를 주제로 지역 문화 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을 마련해 온 박물관은 올해 사업 선정을 통해 온라인 이론 교육과 탐방, 체험 활동 등 심화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7일 전주 신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초등 10개 학급이 이론수업과 탐방, 체험활동을 이어가고, 중등 자유학기제 수업도 5개 학급이 참여하는 등 8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체험 활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상을 통한 이론 교육도

마련됐다. 전시실 수어해설 영상, 풍남문과 전주성에 대한 이론 교육 등을 영상에 담아 학교에 보급, 1차적 교육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풍남문과 전라감영 탐방을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에 직접 방문해 풍남문 조립과 전주성 지도까지 완성함으로써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다.

홍찬석 관장은 "올해 개관 60주년을 맞은 전북대박물관은 해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인문교육 확산을 주도하고, 특히 지역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체험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심화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문정신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